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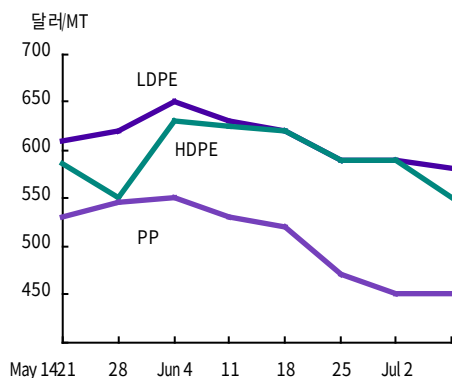
숨막히는 중국의 역공세

석유화학산업계가 수출단가 하락을 막는다는 구실로 자율적인 합성수지 생산감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1999년6월부터 중국에 대한 폴리올레핀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PE·PP·PVC·PS·ABS 등 합성수지 수출은 5월 27만9400톤에서 6월 18만1800톤으로 급격히 줄었고, 수출감소는 합성수지 수출의 53%를 차지하는 중국수출이 6월중순부터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 또는 대폭 감축함에 따라 석유화학기업들이 가동률을 평균 20% 낮추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합성수지 수출가격은 PP가 6월초 톤당 550달러에서 6월말 470-480달러로 70달러 정도 떨어졌고, HDPE는 640달러에서 570달러로 하락했다. 반면, 프로필렌 가격은 톤당 410달러에 달해 생산할수록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나프타 가격도 유가급등에 따라 톤당 180달러대로 1999년초의 110-130달러에 비해 50%가량 치솟아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들어 배럴당 2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상승기조를 타고 있다. OPEC 산유국들이 1999년4월 감산에 합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석유기업들이 OPEC을 원유 덤핑혐의로 제소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어 원유가격이 더 올랐으면 올랐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름철이 지나고 북반구의 난방용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배럴당 18-20달러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기업들은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합성수지 생산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대림산업, 효성, LG칼텍스정유 등은 재고부담 등을 우려해 6월 중순부터 공장 가동률을 10-20% 가량 낮췄고, 합성수지 생산기업 전체적으로도 10-30% 감산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들린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채산성 악화 및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장가동률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나 각자의 상황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석유화학협회가 주동이 되어 감산 및 가격인상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담합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합성수지 수출감소 기미가 예상됐던 5-6월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7월에 들어서야 가동률 감축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개혁의 틈바구니에서 움추리고 있던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정국의 난조를 틈타 가격을 담합·인상하려는 「석유화학 카르텔」을 재시도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박훈 상무가 합성수지 메이커들이 감산에 들어가면 한달에 10톤 가량의 공급 감소 효과를 보게 돼 수출물량이 30%가량 줄어들지만 조만간 수출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평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다만, 중국은 국내수요 부진으로 재고가 증가해 수입여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6월초까지 정기보수를 끝낸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이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면 국제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이 늘어나고 중국이 수입을 감축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부터 공장가동률을 조정하면서 수출가격을 급등시킨 원죄가 보복을 당하는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장사하면 華商이라고 하지 않는가.
1999년 정기보수 집중은 실수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도를 벗어난 상술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9/7/12>